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리스도 - 산 소비노 작(이탈리아 피렌체)

† 오늘의 전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루카 12,32-48 참조)

관심이 가는 일에는 누구나 신경을 쓰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보람을 기대합니다. 그와 반대로 마치 못해 하는 일에는 그저 모양이나 낼 뿐, 마음을 기울여 애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1독서 지혜 18,6-9 **제2독서** 히브 11,1-2,8-19 **복음** 루카 12,32-48

입당송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박상일 이나시오 신부 | 지례본당 주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약속을 한다. 약속은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말이다. 하느님께서도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다. 노아에게는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후손과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 백성들은 하느님께 다짐하며 약속했다. “온 백성이 한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탈출 24,3),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24,7) 하고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표현하였다.

오늘 제1독서로 들은 지혜서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이집트 탈출 사건을 통해서 약속을 충실히 지키신다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며 충실해야 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다. 하느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어기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러나 하

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완성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충실한 믿음을 간직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충실하라고 이르신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얻으려면 항구한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깨어 있는 충실한 종처럼, 신앙인들도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해 항구하게 희망할 수 있다. 그리고 희망하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충실하게 응답할 수 있다.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충실한 믿음을 상기시키며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충실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충실한 응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



신앙의 해 교리 퀴즈 ⑰



성체성사나 고해성사는 자주 받을 수 있지만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는 다시 받을 수 없으며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성사 받는 사람의 영혼에 당신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표를 새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무엇이라 할까요?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가르침②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에 이어 살펴볼 공의회 문헌은 <일치의 재건>이라 이름 붙여진 교회 일치에 관한 교령입니다. 원천으로 돌아가 쇠신한다고 하는 공의회 정신은 갈라진 형제들에 대한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친교의 자세로 나타납니다. 이는 그 이전의 방어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했던 타 종파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을 제정하시고 ‘갈라진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시기 전만 해도, 천주교 신자들은 프로테스탄트나 정교회 신자들을 흔히 열교인, 또는 이단자로 불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일치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는 것도 아니고 모두 천주교로 다시 개종시켜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공의회가 가르치는 일치의 근본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교회 일치의 최고 표본이자 최고 원리”는 “삼위의 일치, 곧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일치”이기 때문입니다(2항).

세례도 하나이고 주님도 한 분

그러므로 공의회는 교회의 일치가 인간의 힘만으로 추구되어서 이뤄질 법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느님의 주도권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이 인간의 나약함이나 실수보다 더 강하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단일 유일한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초기부터 분열이 생겼던 것이며 ... 후세기에 와서는 더 많은 불화가 생겨, 적지 않은 단체들이 ‘가톨릭교회’와의 완전한 일치에서 갈라지게 되었으며 때로는 양쪽 사람들에게 탓이 있었다.”(3항)고 말할 때, 공의회는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제도나 기관으로서의 교회보다 예수님의 몸이 더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대화

그러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분의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치 교령은 5항에서 12항까지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갈라진 형제들의 상황을 공정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그들과 상호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말과 판단과 행동을 삼가는 모든 노력”이 그 첫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희망과 신뢰를 버리지 않으면서 솔직하고 끈기 있게 갈라진 형제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할 일은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신 주님께 일치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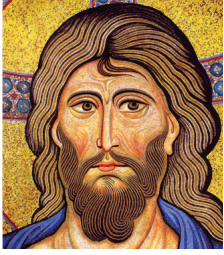


“세례, 견진, 성품 이 세 성사는 성사의 은총뿐 아니라 성사의 (), 곧 ‘인장’을 새겨 준다.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각기 다른 신분과 역할에 따라 교회의 지체를 이룬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121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문화홍보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벌을 대신 받아 돌아가셨다고 하여도, 단지 그 뿐이었다면 그 죽음이 우리 사람에

게 참된 희망의 근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은 이루어졌지만 의인의 희생이 받을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4)

부활 : 실제로 일어난 사건

빈 무덤과 제자들의 혼란이 증언하듯,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누가 이것을 조작하려 하였다면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더 그럴듯하게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는 까닭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활은 신앙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증언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 :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 증거

예수님의 부활은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수명을 다하면 죽어

야 하는 이전의 육체적 생명을 다시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연적인 생명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그분의 육신도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신과는 달리 물리적인 한계를 갖지 않는 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즉 하느님으로서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수난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요한 10,18)

부활 : 예수님과 함께 죽는 모든 이의 희망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그 말씀과 행적이 진리임을 드러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지만, 또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참으로 인간답게 바로 사는 것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결국 손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어하는 이웃의 짐을 대신 져 주는 것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남을 모른 채하거나 해를 입히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지상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의 맛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마침내 그분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궤약**



바로 지금!

어떤 한 학생이 저명한 신학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기는 죽는가 보지요?”

“그럼.”

“그럼 죽기 전에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군요.”

“그렇지.”

“그렇다면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야 그저 몇 분이면 되지.”

“그럼 구원 받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도 몇 분이면 되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죽기 몇 분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 받지 않았나?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

그러자 그 학생은 “그렇다면 괜찮겠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간단하네요. 그러

면 저는 실컷 즐기며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신학자는 학생을 불러 앉히고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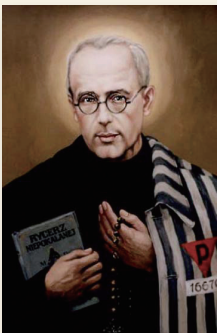
“그럼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그거야 모르지요...”

“바로 그게 문제일세.”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금주의 성인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8월 14일)

1941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는 탈주범으로 인해 지목된 10명의 처형자들이 아사 감방(굶겨 죽이는 형벌의 감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죽음의 대열 속에서 한 사람이 불쑥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내게는 아내와 어린 자식이 있소.”하며 울부짖었다. 폴란드 국민들에게 크나큰 존경을 받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던 콜베 성인께서는 이를 지켜보시다가 앞으로 걸어 나가셨다. “저 사람 대신에 나를 데려가시오.” 그 길로 아사 감방에서 굶주림의 고통을 받으시다

가 결국 보름 만에 독약주사를 맞고 생을 마쳤다. 성인께서는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이므로 1982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자비의 순교자’라는 칭호와 함께 시성되었다.



서준홍 신부님의
성모당 이야기

어려니,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 주시나...**

대구대교구 성모당 담당사제이신 서준홍(마티아) 신부님께서 대구주보에 연재하셨던 <성모당 이야기>가 마침내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교구의 역사이기도 한 성모당 이야기를 통해 교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모으면서 성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역사적 사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성모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미였습니다...”

- 역은이 : 서준홍 신부 | 230쪽
- 발행 : 2013년 8월 15일 | 판매가 : 10,000원
- 구입문의 : 교구 성모당 담당 053)250-3055 | 대건인쇄출판사 053)252-6737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매월 참여해주시는 교우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영성사진 콘테스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사진 콘테스트 참여 방법

- 공모주제 :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 공모기간 : 12. 11. 25(일) ~ 13. 10. 31(목)
- 출품방법 : 공식 응모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품 (<http://contest.daegujobo.or.kr>)



인터넷 방송(팟캐스트) **'옥탑교리방'**

가톨릭 청소년 교리서(YOUCAT)를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해설하고 토론하는 인터넷 방송(팟캐스트) 프로그램으로, 회당 30분 분량을 연간 20회 송출합니다.

팟캐스트 청취방법(스마트폰, PC)

- 아이폰 팟캐스트 앱의 스토어 메뉴, 안드로이드폰 팟드로이드 앱에서 '옥탑교리방' 검색
- 아이튠즈 실행 후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옥탑교리방' 검색 또는 교구 홈페이지 메인 '옥탑교리방' 배너 클릭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17주일(7월 28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모든 성인의 통공>입니다.

당첨자 : 김귀숙(크리스티나, 만촌1동), 황진희(안나, 신암), 손경란(바울라, 대해)

서명숙(안나, 효자), 손석주(대건안드레아, 연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12일(월) 11:00 계산성당	2대리구 성소를 위한 기도모임	8월 12일(월) 11:30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12일(월) 11:00 월성성당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8월 12일(월) 20:00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8월 12일(월) 11:00 성간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2일(월) 11:00 신명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2일(월) 11:00 신명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8월 17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12일(월) 11:00 죽도성당	성음악 평화 미사	8월 17일(토) 15:00 프란치스카눔

성소 | 피정

성소식별 피정

기간: 8.24(토)~25(일)

장소: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본원

대상: 34세 미만 미혼 여성(2만 원)

문의: (010)8920-9423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8.22(목) 9:45~25(일) 17:00

동반: 김수조(아가다) 수녀

장소: 톡징포교성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14만 원, 문의: 313-3425

젊은 여성 피정

기간: 8.23(금) 20:00~25(일) 15:00

장소: 성가소비녀회, 카페: 소비녀뜨락

주제: 내일을 적정하지 마라(마태 6,34)

대상: 35세 미만 / 선착순 35명

피정비: 3만 5천 원 / (010)5476-5801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수도원 피정

일자: 매주 금 19:00부터 2박 3일

장소: 경기 안산 상록구 일동 533번지

도미니코수도회(10만 원)

문의: (010)9916-5798

<http://www.mindcamp.kr>

교육 | 모집

쉽게 읽는 거룩한 독서 성경 모임

접수: 7.15(월)~8.28(수)

낮반: 월~목, 저녁반: 월~화

장소: 경산어버이성경학교, 대상: 전신자

내용: 마르코 복음 · 요한 복음

문의: 815-1114 / (010)4910-4627

삼위일체수도회 젊은이 캠프

기간: 8.17(토) 16:00~18(일) 17:00

장소: 부산본원 및 마산삼위일체수도원

회비: 2만 원, 대상: 미혼 남녀

문의: (010)8875-3217(여)

(010)5034-1199(남)

월배 프란치스카눔 수강생 모집

진동길 신부의

문인화와 함께하는 영성 생활

첫모임: 8.27(화) 4개월 과정

매주(화) 11:30, 20:30

문의: (070)4266-0047

오순절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김마리아, (010)5529-3186

히말리아-안나푸르나 트래킹

기간: 9.26(목)~29(일), 3박 4일

10.7(월)~18(금), 10박 11일

문의: 한국가톨릭문화원(인천교구)

(010)4711-8188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대만선교지 체험

기간: 10.18(금)~22(화)

장소: 대만 신주 교구

접수: 9.10(화)까지, 50만 원(항공료)

대상: 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여대생의 뜰 (기숙사)

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대 건너편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종교무관, 숙식)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02)911-7580

<http://www.rcm1892.net>

철곡 박 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이명, 난청, 보청기 상담
편도염, 인후염, 역류성질환, 성대질환
어지럼증 클리닉(달팽이관)

이비인후과
전문의/원장 **박 규 옥(바오로)**

동천동 주민센터 옆 파리바게트 2층
☎ 053)325-7577

www.gabimaru.co.kr
가비마루 커피

김재창(프란치스코) 이정숙(베네딕타)

특허진공티백 100%원두커피

본당 수익사업 상담환영
1588-3646 / 053)584-0404

팡팡스크린골프존

이 남 희 (세례자요한)

T. (053)571-6611~2

· 서부초등학교
· 300평원 · 학교
· 4사구형
· 300평원 · 학교
· 4사구형
· 300평원 · 학교
· 4사구형

· 동서주야 60대가능(1,000명 대제) · 스크린 9종 · 실내연습장 7석 완비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순우 (오셀)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루카)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유방 갑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 053)252-6875

나가사키 성지순례

제4차 9월25일~28일(카멜리아)

순례경비 59만 5천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치질·내시경

하루 종일
通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신격동 대우아파트 앞
☎ 959-7175

www.hangmuns.com

2014학년도

베드로관(小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 공동체 생활 학습은 무학고등학교 재학 (경북 하양 소재)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베드로관, 854-2085

교구 성소담당, 250-3071

교육 | 모집

8월 가나강좌

일시: 8.18(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청소년·청년 '이웃사랑실천 UCC공모전'

대상: 1~3대리구 주일학교 / 청년단체

내용: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봉사

마감: 8.30(금)까지

문의: 2대리구 사회복지회, 744-5671

<http://cafe.daum.net/2caritas>

19차·20차 어머니학교 모집

기간: 8.22~9.26(매주 목, 5주간)

19차: 9:30~14:30 / 20차: 19:00~22: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회비: 10만 원

문의: 봉사자, (010)6784-7773

26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모집

기간: 8.24~9.28(매주 토)

15:00~21:00(5주간)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신청비: 15만 원 / 문의: 641-5678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13차: 8.23(금)~25(일)

장소: 한티 피정의 집

문의: 대구ME, 983-0521

교원들을 위한 에듀힐링 신청 환영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성체신심세미나

기간: 8.16(금)~18(일), 한티피정의집

내용: 현시·조배, 강의, 참회예절,

면담성사, 안수

신부: 하성호, 송재준, 현익현,

변재홍, 정기모

문의: (010)5493-1819

선교, 왜 못하는가? 선교세미나·미사

일시: 9.28(매주 토) 10:30~12:30

장소: 계산문화관 3층

대상: 하느님의 열정으로 선교 원하는 분

강사: 이관석 신부 외 다수 강사

문의: 가두선교단, 781-6100

스페인어 초·중급반 모집

개강: 9.3(화) 초급반, 4(수) 중급반

시간: 오전반 10:00, 저녁반 19:00

장소: 가톨릭근로사회관

문의: 253-1313

카리타스 달서구보금자리 입소인 모집

시설구분: 실비부담 장애인그룹홈

장소: 달서구 소재 아파트 및 주택

대상: 성인 지적장애인(30명)

이용료: 소득수준별 실비부담

문의: 721-7090 / (010)2369-3140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 사이버 상담

상담: 253-1405, 6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교육생 모집

생활일본어, 천연비누·천연화장품,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대금, 리본공예, 켈트,

POP, 초코아트, 토포인팅

문의: 476-6211

대가대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보육교사/사회복지사/음악), 교회

음악(성가교실/지휘/반주), 음악 1:1레슨

교양·문화강좌, 전문자격/취업 과정 등

모집: 8.30(금)까지 / 개강: 9.2(월)부터

장소: 감삼동 / 문의: 660-5556~7

채용 | 안내

대체근무 사회복지사(여) 모집

근무: 9.1(일)~11.30(토), 3개월

접수마감: 8.31(토)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 vivianna1014@hanmail.net

문의: 대구작은예수의집, 652-6740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서울 사무실 흥대 앞
이원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울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곽연신염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박사/원장 신재훈(무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발리)
<http://www.ksnose.com>

서정의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외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내 집처럼 편안한 곳
효신 노인 요양 센터
[북구 서변동 1779번지]
이도미니코, 흥율리야나
☎ 939-4567

음주운전등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전문
합동 감정 행정 사무소
대표 박수원(스테파노)
대구 MBC 네거리 문화웨딩 맞은편 3층
☎(053)753-4972 / 010-3651-4972